

나주에 국내 첫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센터' 들어선다

환경부, 국비 454억 투입 나주혁신산단에 2026년 준공 탄소중립 자원순환 플랫폼 구축...재활용 산업 거점 도약

나주시가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산업 활성화를 위한 국내 최초 전기차 전주기 탄소중립 통합환경정보센터 건립에 속도를 내고 있다. 나주시는 최근 청주시 오송&세종 컨퍼런스 회의실에서 '전기차 전주기 탄소중립 통합환경정보센터' 설계용역 착수 보고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국제적인 탄소배출 규제로 전기차 전(全)주기에 대한 탄소배출 데이터의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됨에 따라 환경부는 오는 2026년까지 국비 454억원규모로 나주 혁신산단에 전기차 전주기 탄소중립 통합환경정보센터(이하 센터)를 건립할 계획이다. 앞서 나주시는 센터 건립 절차인 2023년 3월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 기본계획 수립,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 검토 및 심의 절차를 지난해 연말까지

완료했다. 이어 올해 국비 50억원을 확보, 본격적인 설계용역에 착수했다. 센터는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를 재사용·재활용하는 자원순환산업 활성화 플랫폼으로 구축된다. 전기차 배터리의 제조·생산에서부터 차량탐색 사용, 폐기까지 전기차 전주기의 탄소배출과 환경·자원순환 등을 총망라한 통합환경 정보를 수집·분석·운용·유통·활용하는 체계를 갖추게 된다. 사용 후 배터리의 입고 단계부터 배터리팩 또는 모듈 진단 결과, 등급 분류, 안전성 검사, 출고 이력 등도 전산 시스템으로 관리한다. 나주시는 센터가 구축되면 국제적인 탄소중립 규제 대응과 함께 배터리 핵심 자원의 국내 공급망 확

보로 자원의 지속 가능한 사용을 촉진할 '순환 경제' 활성화의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원의 순환 경제는 탄소중립 실현의 핵심 열쇠로써 지구환경오염과 온난화, 국가 간 에너지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반드시 실현해야 할 과제다. 이 때문에 전기차 배터리와 같은 폐자원의 재활용 산업이 전 세계적으로 각광 받는 이유다. 이에 정부도 올해부터 전기차 폐배터리 가운데 내부 격벽(셀)이 훼손 없이 정상적이고 화재·폭발 등 위험이 없는 경우 순환자원으로 인정하고 폐기물 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센터가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을 위한 안전성 확보는 물론 데이터 기반의 자원순환 산업 육성의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혁신산단에 구축될 사용후 배터리 산업화 센터와 협력을 통해 관련 기업 유치에 힘쓰고, 나주에 미래 먹거리인 배터리 산업 생태계를 앞당겨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



오는 2026년까지 나주혁신산단에 들어설 '전기차 전주기 탄소중립 통합환경정보센터' 조감도.

장흥군 해동사 인근에 안중근 의사 추모역사관 개관

순국 114주기 추모제·개관식

장흥군이 지난 26일 장동면 해동사에서 '안중근 의사 순국 114주기 추모제'와 '추모역사관' 개관식을 개최했다. **〈사진〉** 이날 행사에는 김성 장흥군수, 왕윤채 장흥군의 회 의장을 비롯한 지역 기관단체, 죽산 안씨 문중 관계자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전통제례로 시작한 추모제는 안중근 의사 약사 보고, 유인 낭독, 추모 공연, 헌화 분향의 순으로 진행됐다. 장흥군은 추모제와 함께 '안중근 의사 문화관광 자원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추모역사관' 개관식을 함께 열었다. 해동사 인근에 들어선 추모역사관은 2995㎡부지에 연면적 249㎡의 규모로 지어졌다. 역사관 내부의 전시실, 영상실에는 안중근 의사의 의병활동과 하얼빈 의거, 평화와 화합을 위한 염원을 담은 다양한 콘텐츠들로 구성되어 있다. 빛의 울림이던 주제로 연출된 로비에는 안중근 의사를 상징하는 인터랙티브 체험형 조형물을 설치했다. 전시실은 안중근 의사의 생애 전반과 격변하



는 시대의 모습을 표현한 히스토리 라인으로 연출했다. 관람객들은 안중근 의사가 피로 맹세한 자작나무 숲, 대업을 위한 8일간의 준비과정, 하얼빈 의거 현장, 수감 이후 평화의 메시지가 담긴 의사의 일대기를 만나볼 수 있다. '안중근, 빛으로 기억되다'란 주제의 영상실은 5면 영상과 천정 구조를 그대로 반영한 공간감으로 독립과 평화에 대한 염원을 표현했다. 해동사 인근에 애국탑방로에 이어 추모역사관

까지 완성하면서 장흥군의 안중근 의사 문화관광 자원 개발사업은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 장흥군은 해동사와 추모역사관을 전국 학생들의 교육·체험의 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김성 장흥군수는 "안중근 의사가 보여준 나라 사랑 정신과 세계 평화의 꿈이 해동사를 통해 널리 알려질 것"이라며 "앞으로 추모역사관 야외에 조형물과 편의시설을 보강해 지역의 역사·문화 공간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흥=김용기 기자·중부취재본부장 kykim@

강진군, '반값 가족여행 시즌2' 사전 접수

6월 20일까지...여행비용 50% 지원

강진군이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반값 가족여행 시즌2'에 대한 사전 접수를 한다. 지난 시즌과 동일하게 관외에 거주하는 가족 단위 사전 신청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며 강진 여행비용의 50%를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해준다. 사전 신청은 6월 20일까지이며 지원금 정산신청은 6월 30일까지다. 여행 종료 후 7일 이내 신청해야 한다. 한층 더 세밀하게 보완한 이번 시즌은 지역 상품권 정책발행 가맹점(연 30억원 이상 매출 업소)에

서 사용한 영수증에 제한을 뒀 농어업 분야와 소상공인 매출 상승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군은 설명했다. 설명절 연휴와 제52회 강진정지축제를 중심으로 진행된 반값 관광 시즌1은 2천250가족(6천389명)이 강진 반값여행 혜택을 받았다. 강진군 관계자는 "반값 강진 관광의 해와 반값 가족여행 강진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행정의 영역뿐만 아니라 정가 받기, 관광객을 내 가족같이 맞이하기 등 민간 영역의 활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kwangju.co.kr



이상익(가운데) 함평군수와 이재운(왼쪽) 한국중축개량협회 회장, 김영주 함평축협 조합장이 지난 26일 함평군청에서 한우 개량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함평군 제공>

함평군, 우량 한우 생산 업무협약 체결

함평축산농협·중축개량협회와 씨수수 생산 기반 구축 등 협력

함평군이 함평축산농협, 한국중축개량협회와 함께 함평 축산업 발전과 경쟁력 확보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사진〉** 이번 업무협약은 삼자 간 한우 개량에 관한 기술·정보 공유를 통해 축산농가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우수한 중축 선발로 경쟁력 있는 우량중축 생산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추진했다. 함평군은 함평전지한우 브랜드 육성과 축산농가의 소득 증대를 지원하고, 함평축협은 유전체 분석 정보를 활용한 우량 암소 선발, 유전적 개량 확대를 담당한다. 중축개량협회는 유전체 분석을 통해 우량 축근 조

성과 우량 암소에서 생산한 함평군 씨수수 생산기반을 구축하는 등 각 기관이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 함평군은 우량암소 개체 수를 늘려 개량 활성화를 촉진할 목적으로 올해를 한우 우수종자 개량의 원년으로 삼고, 한우 암소 유전체 분석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시행 중이다. 이재운 한국중축개량협회 회장은 "함평축협과의 긴밀한 유대관계 구축으로 정확한 신속한 개량정보 제공 서비스를 통해 함평군 내 축산농가의 한우개량 속도를 내게 됐다"고 말했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이번 MOU 체결을 통해 군과 축협, 종개협 3자간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과 함께 사업 효과를 극대화하여 우리 군 한우 산업 발전과 축산농가의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함평=한수영 기자 hsy@kwangju.co.kr

나주실내체육관 '반다비 체육센터' 탈바꿈

9월까지 전면 개보수 공사

다음 달부터 나주실내체육관에 대한 전면 개보수 공사에 들어가 오는 9월 반다비 체육센터로 새롭게 문을 연다. **〈사진〉** 반다비 체육센터는 2018년 평창 동계 패럴림픽 공식 마스코트였던 반다비에서 착안한 명칭이다. 전체 면적 3849㎡에 지상 2층 규모로 30억원의 리모델링 사업비가 투입된다. 나주시는 반다비 체육센터가 장애 맞춤형 운동처방, 장애인 스포츠 강좌 운영 등을 통한 장애인



생활체육의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나주=손영철 기자 ycsn@kwangju.co.kr

수선화 활짝 핀 전라병영성 29~31일 축제

성곽 산책로 1km 13종 5만 송이 만개...사흘간 다양한 행사



'전라병영성 축제' 1km 구간에 활짝 핀 수선화.

'제27회 전라병영성축제'를 앞두고 병영성 성곽 산책로 1km 구간에 아름다운 수선화가 꽃을 피워 축제 분위기를 띄우고 있다. 강진군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네덜란드에서 수입한 수선화 13종, 5만개가 병영성 성곽 산책로 1km에 식재됐다. 나머지는 작년 까치내 공원에 심었다. 수선화는 품종별로 개화 시기가 달라 현재는 알블(Arkley), 고블렛(Goblet), 핼퍼넬(Pimpernel) 3종이 주로 피어있다. 수선화를 수입한 네덜란드와 강진의 인연은 조선 시대의 하멜로 거슬러 올라간다. 병영성 인근 하멜 기념관이 있고 하멜 일행이 조선에 억류당한 13년 20일 중, 7년간 강진에 체류했다고 알려져 있다. 수선화는 여러해살이 식물로 노지 화단에 심을 경우 한번 심어놓으면 매해 같은 장소에서 아름다운 자태를 감상할 수 있지만 뿌리와 옆에 강한 독성이 있어 먹지 말아야 한다. 수선화의 영어 이름인 나르키소스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나오는 나르키소스가 물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고 다른 여이번 사람이라 생각해서 반한 나머지 종일 수면만 쳐다보다가 꽃이 됐다는 기원을 갖고 있을 만큼 아름다운 모습을 자랑한다. 전라병영성축제는 29일부터 31일까지 열린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kwangju.co.kr

담양 어린이프로방스

어린이 동반 관광객 무료 개방

담양군이 30일부터 어린이 동반 관광객 유치를 위해 메타세쿼이아랜드 어린이프로방스를 무료 개방한다. 담양군은 무료 개방에 앞서 매표소 이전과 안내판 설치, 진·출입로 정비 등을 통해 군민과 관광객 누구나 즐길 수 있도록 시설을 개선할 예정이다. 담양 어린이프로방스는 메타세쿼이아랜드에 넓은 잔디밭과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공동 조형물, 다양한 놀이기구와 생태환경으로 구성된 아이들이 맘껏 뛰놀며 체험하기 좋은 곳이다. 담양군 관계자는 "어린이프로방스의 접근성 향상과 쾌적한 관람을 위해 넓은 시설을 정비하고 동선을 개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담양=한동훈 기자 hdh@

화순군, 개미산 전망대 음식점 운영자 모집

4월1일까지 사업 제안서 신청

화순군이 올 상반기에 준공 예정인 개미산 전망대에서 휴게음식점(카페)을 운영할 역량 있는 사업자를 공개 모집한다. 개미산 전망대 위치는 화순군 화순읍 연양리 335-1번지 일원으로 전망대를 방문하는 관광객과 주민에게 화순의 아름다운 경관 관광과 더불어 먹거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입찰 공고문의 참가 자격에 적합한 사업자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프랜차이즈 커피 판매점 등의 입점도 가능하다.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사업자는 4월1일 까지 화순군청 건설교통실을 직접 방문하여 제안서를 제

출해야 한다.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평가(기술 능력 평가 80점, 가격평가 20점)를 거쳐 선정된 운영자는 계약 체결 후 3년간 운영할 수 있으며, 1회(3년)만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제안서 평가 위원회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개모집하고, 평가위원회를 거쳐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입찰 공고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온비드(한국자산관리공사 온라인 공공자산 처분 시스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화순군청 건설교통실(061-379-3761)에 문의·상담도 할 수 있다. /화순=조성수 기자 css@kwangju.co.kr